

## 종합·해설



이곳이 뜨겁다 ▶ 광주 서구 갑

# “민주 정신 못차렸다” VS “그래도 민주당”

## ■ 민심 들어보니

이름	성용재(63·새)	박혜자(여·55·민)	정호(48·통)	송갑석(45·무)	조영택(61·무)	정용화(47·무)
기호	1	2	4	6	7	8
주요 경력	새누리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호남대 교수	통합진보당 환경위원회 전 대체 4기 의장	전 대체 4기 의장	18대 국회의원	전 청와대 연설 기록 비서관
주요 공약	·신용불량제도 완화 ·공공복지, 국고수수미기 ·양동복제개선과 세계적 전통시장 육성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제정	·시립문화도서관건립 ·청년실업자 취업촉진 수당지급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제정	·비정규직 문제해결 ·고등학교·국공립대 무상교육 ·광주 군공전투비행장 이전	·양동시장 관광상품화 ·특수목적고 설립 ·직장 내 보육시설 시범지역 설정	·상무소각장 이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재개발·주거환경개선 ·시구 행복나눔카드 발급 및 운영	·광주 미래성장동력 ·광주 미래성장동력 ·광주 마이스터고 설립 ·시구 행복나눔카드 ·발급 및 운영

※ 새=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통=통합진보당, 무=무소속

서구 갑의 지역 민심은 민주통합당의 ‘오락가락 공천’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보이면서도 지지 후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민주통합당이 확고한 원칙에 의해 경선을 진행하기 보다는 광주가 ‘정치적 덫발’이라는 인식 아래, 무사안하게 공천에 나서 결국 ‘탈’이 났지만 조금 더 두고 본 뒤, 최종 지지 후보 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주민 김모(54·치평동)씨는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민주통합당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며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맙다고 무소속 후보를 무작정 쳐는 없어 조금 더 지켜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모(50·상무1동)씨는 “민주통합

당이 서구 갑에서 제대로 지지를 얻으려면 당 지도부의 인사들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면 지난 서구청장 선거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나선 후보들에 대한 연민도 물어났다.

최모(38·회사원·농성2동)씨는 “제대로 경선을 붙여줘야 할성이 없을 것 아니냐”며 “경선에서 배제된 송갑석 후보의 경우를 보니 억울할 만도 하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들은 당을 떠나 개혁적이고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찍겠다는 입장은 보였다.

학원생 이모(31·농성1동)씨는 “당이 중요하기보다는 후보들의 개혁성과 정책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며 “각종 토론회와 공약들을 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주통합당에 힘을 보

어야 한다는 반응도 상당했다. 자영업을 하는 김모(57·양동)씨는 “그래도 민주통합당을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경선에서 잡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공천할 만한 인물을 내세웠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치평동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37)씨는 “여성 후보가 여성의 마음을 더 잘 알지 않겠느냐”며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간다”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박모(53·광진동)씨는 “아직까지 서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총선 때만 나타나서 절하는 후보들에게 질렸다.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뜨거운 주말 광주 유세전



“이정현에 한표를”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이 지난 30일 광주 서구 회정동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이정현 서구 후보 등과 함께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병윤과 어깨동무”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서대석 전 후보가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풍금시거리에서 아권연대 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윤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인 뒤 환하게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오락가락 공천’ 민심의 평가는?

## ■ 공약과 쟁점

광주 서구 갑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는 광주공항 및 삼부소각장 이전, 양동시장 활성화 대책, 양동 및 광천동의 재개발 사업, 농성동, 유덕동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꼽히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방안에 대해 이견보다는 대체적

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커다란 쟁점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대 쟁점은 민주통합당의 ‘오락가락 공천’에 대한 지역 민심의 평가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까지 지역 민심은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박혜자 후보가 논란 끝에 민주통합당 공관에 올라온 후보와 통합진보당 정호 후보는 8.4%, 7.7%의 지지율을 보이며 분위하고 있지만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박혜자 후보는 현재의 우세 상황에서 선거 막판 민주통합당 바람이 살아난다면 무난한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천 논란 등으로

당 공천을 받았지만 암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무소속의 조영택, 송갑석, 정용화 후보 등과 혼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판세가 혼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선거 막판에 가서야 지역 민심의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빙 혼전… 투표함 까봐야 안다”

## ■ 판세 및 변수

광주 8개 지역구 가운데 가장 치열한 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혼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주통합당의 무원칙한 공천 과정이 꼽힌다. 현역 국회의원을 첫-오프에서 탈락시킨 뒤, 무려 2주 동안을 경선과 전략공천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지역 민심만 악화시키면서 혼전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24~25일 실시된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3.1%), 논란 끝에 민주통합당 공천을 따낸 박

혜자 후보가 23.3%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선두를 달렸고 그 뒤를 무소속 조영택 후보가 20.7%로 오차범위 내로 바짝 따라붙었다.

무소속의 송갑석 후보와 정용화 후보도 각각 16.5%, 15.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역전을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의 성용재 후보와 통합진보당의 정호 후보는 8.4%, 7.7%의 지지율을 보이며 분위하고 있지만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박혜자 후보는 현재의 우세 상황에서 선거 막판 민주통합당 바람이 살아난다면 무난한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천 논란 등으로

표출되지 못했던 4~5% 정도의 민주통합당 지지 표심이 선거 당일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조영택 후보 층에서는 첫-오프 탈락은 민주통합당의 기획·밀실 공천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민이 결국 경륜과 역량이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송갑석 후보도 민주통합당이 특정 후보 공천을 위해 당시 ‘언론사 여론 조사 1위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했다며 지역 민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송 후보는 “개혁적인 청년 후보가 ‘불공정 공천에 희생됐다’는 애잔한 민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용화 후보는 새누리당의 후보 공천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진실은 통한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성용재 후보와 통합진보당 정호 후보도 전반적인 판세는 밀리고 있지만 선전을 다짐하며 북북히 바닥을 디자고 있다.

선거 막판 변수로는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가 꼽히고 있지만 셈법과 상황이 각각 다른데다 모두 역전 승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혼선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결국, 서구 갑의 최대 변수는 지난 서구청장 선거에서 두 차례나 민주통합당 후보를 낙마시킨 지역 민심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충분한 학습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은 선거 막판까지 후보들을 비교 평가할 전망이어서 결국 투표함을 열어 봄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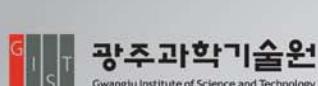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만우절에 한 소리겠죠, 뭐…?

- 김종우



만우절에 한 소리겠죠, 뭐…?



www.gist.ac.kr

# Special Newsletter

지스트는 열정으로 가득찬 여러분들의 힘찬 전진과 도전으로 미래의 또 다른 희망을 탄생시키기 위해 특별한 내용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위한 빅매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 히지 교수님과 맞장뜨다!



김용준  
학사과정 2010학번



앨런 히거 (Alan J. Heeger)  
광주과학기술원 히지신소재연구센터장  
2000년도 노벨화학상 수상

(2011년 QS 대학평가)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대학알리미)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지수 및 교수 1인당 연평균 SCI 논문수 「국내대학 1위」**

영국 QS	2011년 대학평가 세계 12위, 아시아 1위	Citations per Faculty (교수 1인당 논문피인용지수)	
순위	학교명	국가	점수
1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미국	100
2	Rockefeller University	미국	100
3	Stanford University	미국	100
4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미국	100
5	Harvard University	미국	100
6	Princeton University	미국	100
7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	미국	99.9
8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미국	99.9
9	University of Washington	미국	99.8
10	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영국	99.8
11	Johns Hopkins University	미국	99.8
12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	99.7
13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미국	99.6

대학원 기초학기전형  
• 모집과정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모집분야 : 정보기전공부, 신소재공학부, 환경공학부, 생명과학부, 나노바이오재료전자공학과, 광학융합응용물리학과, 의료시스템학과  
• 원서접수 : 2012. 4. 26(목) 9:00 ~ 5. 8(화) 18:00  
• 장학제도 : 납입금(입학금 제외) 전액지원, 식비보조금 및 학자금 지원  
• 입시설명회 : 2012. 4. 14(토) 14:00 서울 COEX 301호, 2012. 4. 27(금) 11:00 GIST 오룡관 101호  
• 오픈 캠퍼스 : 2012. 4. 27(금) 14:00, GIST 각 모집단위별 지정장소

대학 수시모집  
• 모집과정 : 학사과정  
• 모집분야 : 기초교육학부(자유전공 90명)  
• 원서접수 : 2012. 8. 23(목) ~ 31(금)  
• 장학제도 : 납입금(기성회비 제외) 전액지원, 식비보조금 및 학자금 지원  
• 2학년 우수 재학생 미 명문대 하계연수 8주 지원, 전원 기숙사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 대학원선발팀 Tel. 062) 715-2052 / 입학사정관팀 Tel. 062) 715-2952 / http://admission.gist.ac.kr